

스포츠로 하나된 '달빛동맹'...광주서 선의의 경쟁

13~14일 스포츠 교류대회
광주·대구 264명 화합 다져
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도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광주·대구간 '2024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가 13일 광주에서 개막했다.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총 264명이 참가해 스키시, 농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4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영호남 화합을 다진다. 13일에는 광주를 방문한 대구 선수단을 대상으로 환영식과 문화탐방 프로그램 및 환영 만찬이 진행됐다. 14일에는 광주시체육회관(스키시), 상무국민체육센터(농구), 광주여대(배드민턴), 영주파크골프장(파크골프) 등 광주 일대에서 교류 경기가 펼쳐진다. 광주에서는 분부 임직원 30명, 종목단체 선수단 102명 총 132명이 참가한다. 스키시에는 국가대표 출신 김가혜를 비롯한 전문

선수 12명과 동호인부 6명이 출전해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농구에는 남조부와 남중부 각각 13명과 동호인부 10명이, 배드민턴에서는 30~60대 부로 나뉜 동호인부에서 총 32명이 나선다. 파크골프에서도 동호인부 남녀 2팀 등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낸다. 이번 교류대회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체결한 달빛동맹의 공동협력사업 중 스포츠 분야도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됐다. 2013년 광주에서 열린 달빛 야구대전을 시작으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격년제로 번갈아 서로를 초청하며 대회를 개최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스포츠 교류의 장은 물론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추진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대구 선수단을 맞이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에서의 좋은 추억으로 양 도시의 체육인들이 화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2024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 대구선수단 환영행사가 13일 광주시청 2층 무동홀에서 열렸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 장애인탁구팀, 파리패럴림픽 '금빛 스매싱' 도전

김영진·서수연 등 7명 출전
'노 골드' 도쿄 설욕 다짐

광주시 장애인탁구팀이 2024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금빛 스매싱'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 장애인 탁구팀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4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한다. 이번 패럴림픽에 함께하는 시 선수단은 사령탑을 맡은 조재관 감독, 곽호근 코치 포함 총 7명으로 지난 4월부터 장애인탁구 국가대표로 소집돼 이천 선수촌에서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시 장애인 탁구팀 소속 ▲박진철(단식, 남자복식) ▲김영진·김정길(단식, 남자복식, 혼합복식) ▲서수연(단식, 여자복식) ▲김성욱(단식)을 포함한 23명(감독1, 코치5, 선수17)이 대표팀으로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들은 금메달 2~3개를 목표로 세웠다. 지난 2020 도쿄 패럴림픽 당시 한국 선수단은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노 골드'에 그쳤다. 조재관 국가대표 장애인탁구팀 감독은 "금메달



광주시 장애인탁구팀이 오는 8월 28일 열리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을 노린다. 사진은 박진철(왼쪽부터)·김영진·곽호근 코치·서수연·김성욱·김정길·조재관 감독.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제공>

을 하나도 따내지 못한 도쿄 패와는 완전히 변모했다고 자신한다"며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에 보답하기 위해 좋은 성적으로 광주 장애인탁구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목포서 2024 아시아육상투척경기대회 개최

14~15일 20개국 180명 참가
박서진·정일우 등 메달 경쟁

아시아 투척 챔피언을 가리는 '2024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가 14~15일 이틀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장던지기 강자' 대만의 청 차오선을 비롯해 박서진(목포시청), 정일우(여수시청) 등 투척 경기 국내 1인자들이 대거 출전해 육상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열리는 단일종목 대회중 아시아육상연맹(AAA)이 공인한 유일한 선수권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중국,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 18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다툰다. 특히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장던지기에서 91m36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건 청 차오선이



2023 아시아육상투척 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

이번 대회에서 신기록을 경신할지 육상인들의 관심이 쏠린다. 또 '국내 여자해머던지기 1인자'인 박서진과 '남자포환던지기 한국기록 보유자' 정일우도 대회에 참가해 경쟁한 아시아 선수들과 치열한 메달 경쟁을 펼친다. 대회는 총 8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14일에는 남·여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등 6개 종목이, 15일에는 남·여 창던지기 2개 종목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목포시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육상연맹과 목포시육상연맹이 주관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스(왼쪽)와 라파엘 나달. /알카라스 인스타그램

"흠신 나달과 알카라스 파리서 함께 뛰다"

테니스 남자 복식 출전

전·현직 크레이코트의 황제가 올해 파리 올림픽 테니스 남자 복식에서 호흡을 맞춘다. 스페인테니스협회는 13일 라파엘 나달(264위)과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 등 7월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파리 올림픽 테니스 경기는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 가로스에서 개최된다. 나달은 설명이 필요 없는 '롤랑가로의 제왕'이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2차례 우승한 나달은 프

랑스오픈에서만 14차례 정상에 올랐다. 알카라스는 10일 끝난 올해 프랑스오픈을 제패하며 나달의 뒤를 잇는 '차세대 크레이코트 황제'로 주가가 치솟는 선수다. 이들은 파리 올림픽 단식에도 출전하고, 남자 복식에서는 한 조로 호흡을 맞춘다. 나달이 1986년생, 알카라스는 2003년생으로 둘의 나이 차는 17살이다. 스페인은 나달, 알카라스 외에 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32위),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87위), 마르셀 그라노에르스(복식 2위)로 남자 대표팀을 구성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에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도시의 비에로

이창훈 개인전